

『주부문제 공동체 운동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작은 실천 모임〉의 주부들 - 박은주, 김명원, 정복희, 김연숙, 강혜금 씨

주부들의 사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각종 주부교육과정이 활기를 띠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부들 스스로의 힘으로 주부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임이 있어 관심을 끈다.

10월 23일 송파구 오금동 현대 아파트 단지 어머니 교실에서는 소설가 이경자 씨가 강사로 초대된 '중년여성의 현주소'에 대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 토론회를 준비한 〈작은 실천 모임〉은 2년간 주부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조용히 모색해온 그야말로 주부들의 '작은' 모임이다. 현재의 회원은 이종희(37) 박은주(36), 김 원(36), 강혜금(40), 김연숙(39), 정복희(40) 씨



왼쪽부터 김연숙, 정복희, 박은주, 이종희, 강혜금 씨.

균, 여성유권자 연맹 회장), 시민운동(이영희, 인하대 교수), 생활의 재활용지혜(서형숙, 한살림 위원·주부), 개정

을 기억하는 것도 생소한데 주부들은 자발적인 만남을 통해 오랫동안 덮어 두었던 자신의 잠재력과 주부의 사회적 역할에

스치로폴, 부탄가스통은 받아주는 데가 없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학원 안보내는' 소신 교육을 고집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학교 선생님을 찾을 때 봉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다. 또 학교에서 일 가진 엄마라면 당연이 면제해주는 각종 호출을 당할 때마다 매사에 '휘둘림을 당해야' 하는 전업주부의 상황이 못마땅하다. 요즘들어 과소비 억제 운동은 열심히 알뜰하게 살아가는 주부들을 죄인처럼 몰아친다.

이 모두가 주부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무

름이 될 바른 의식을 키워가는 과정이었다는 말이다.

유수한 4년제 대학에서 관혁악과(플룻, 김명원), 섬유예술(박은주), 시청각교육(이종희), 화학(정복희), 약학(김연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이들은 이제 오랫동안 덮어두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적성을 되새겨 보고 있다. 학생시절 아무리 재원이 있어도 10년 이상씩 책 한자 안보고 경우에 따라선 신문도 제목만 보는 '헤드라인 독자'로 살아왔던 생활은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지만 이제 이들의 눈에 '주부가 바르게 서야

했다.

이들의 모임이 '차 마시는 모임' 이상의 것이 되려 한다거나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면 걱정하거나 귀찮아 하며 제동을 걸어온 남편들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내 가족만 잘되면 된다'는 가족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추락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작은 실천 모임〉의 주부들은 그동안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를 반성하는 것과 함께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그 실천을 주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요즘은 〈작은 실천 모임〉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행동에 옮기고 그 성과를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자고 또 한단계 발전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2년 동안의 공부와 토론, 자아성찰을 통해 마련한 10월 23일의 공개강좌는 지극히 사소한 일일 수 있으나 이 행사에 담긴 〈작은 실천 모임〉의 주부들의 내적인 성장은 그 어떤 대조직의 결단에 비길 바 없이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거창한 그릇도 어김없고 고도케 사회